

■ 아동 부문(5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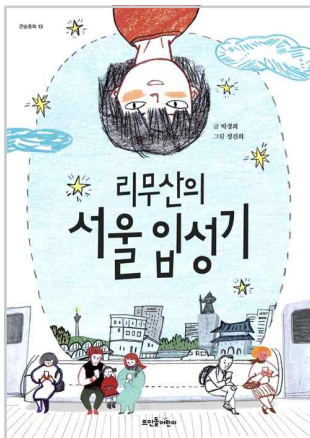
내 마음 배송 완료

(송방순 글, 김진화 그림 / 논장 / 124쪽)

홈쇼핑에서 아이가 엄마를, 다시 엄마가 아이를 판매한다는 다소 파격적일 수도 있는 설정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어른의 모습, 그 모습을 따라하게 되면서 겪는 상황은 재밌었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며 뜻깊은 교훈까지 주는 이야기다.

- 글 송방순 : <렉 걸린 사춘기>, <전갈자리>, <주물럭 공작소 작전 개시>
- 그림 김진화 : <불곰에게 잡혀간 우리 아빠>, <봉주르, 뚜르>

2



리무산의 서울 입성기

(박경희 글, 정진희 그림 / 뜨인돌 / 136쪽)

국적이 없는 채로 중국에서 자란 아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책으로 무산이의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졌다. 어느날 무산이에게 엄마가 보냈다는 낯선 사람이 찾아온다. 공간의 눈을 피해 밤낮을 걷고, 악어가 득실거리는 메콩강을 작은 배로 건너 태국 대사관의 난민수용소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곳. 대한민국의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 그렇게 험하고 고단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대한민국에 온 무산이의 적응기를 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무산이를 함께 응원하고 싶어진다.

- 글 박경희 : <류명성 통일빵집>, <고래 날다>, <난민소녀 리도희>
- 그림 박미연 : <수상한 아이가 전학 왔다>, <괴짜 탐정의 사건 노트>

3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수연 글, 박미연 그림 / 플롯시티 / 34쪽)

이름이 지어지기까지의 정성스러운 과정을 보여준다. 자기 이름의 소중함을 알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소재를 통해 가족들의 설레임과 사랑을 보여준다.

- 글 이수연 : <세상에서 가장 귀한>
- 그림 박미연 :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목탄으로 그려낸 단순한 그림 속에 꿈에 대한 울림이 느껴진다. “춤을 출거예요”는 “난 꿈을 꿀 거예요”로 느껴지며, 이 세상에 모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책 같다. 어릴 적 가졌던 꿈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그림 속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된다. 그림 속 주인공이 계속 춤을 추는 이유는 결국 마지막 한 문장으로 결정된다. “춤이 좋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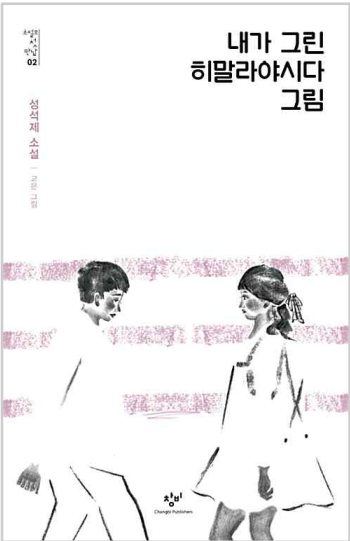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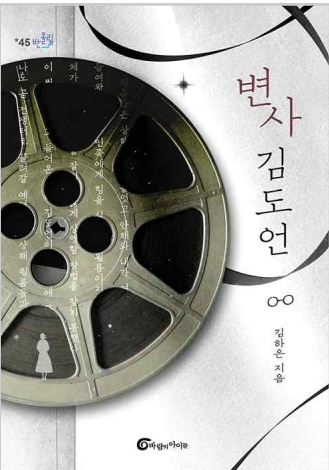
- <거짓말 같은 이야기>, <꽃을 선물할게>, <커다란 방귀>, <나의 엄마>



한번 자면 한 오백년 자는 잠귀신 노리가 실컷 자고 눈을 떠보니 세상이 달라져 있다. 밤이면 조용하고 캄캄해서 놀기 좋던 강 남쪽 배추밭에 불빛이 가득해졌다. 불빛 때문에 고민하던 노리는 같이 놀 친구 자미를 발견하고 강을 건너 달빛이 내려앉은 어두운 숲으로 가고 그곳에서 만난 다른 귀신들도 사람들이 밤에 잠이 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한다. 각시귀신의 자장가가 흘러넘치자 잠 못 들던 강 남쪽 도시에서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한다. 일, 공부 때문에 밤에도 잠 못 드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해 여러 질문을 던지고 있다.

- <백년아이>, <꽃살문>, <아무도 외롭지 않게>, <깊은 산골 작은 집>

■ 청소년 부문(5권)

1	<h3>그래도 나는 피었습니다</h3> <p>(문영숙 / 서울셀렉션 / 216쪽)</p>
	<p>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의 참상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논픽션에 가까운 소설이다. ‘위안부’의 문제가 과거의 문제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현재의 문제임을 액자식 구성으로 이끌어냈다. 소설 속 이야기와 역사적 사실을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주인공 춘자 할머니가 딸과 손녀를 통해 꿈꾸던 행복을 피워내게 되었음을 제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회 ‘푸른문학상’ 수상, 제6회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수상 - <늦게 핀 꽃이 더 아름답다>, <에네겐 아이들>, <궁녀 학이>
2	<h3>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h3> <p>(성석제 / 창비 / 88쪽)</p>
	<p>꿈을 찾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선택의 순간과 뼈아픈 좌절의 경험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떠한 선택이 잘못된지 아닌지를 가는 것은 결국 삶의 태도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한다. 주인공 백선규와 어린 시절에 같은 학교 다녔던 여성의 시점을 교차하며 두 사람의 선택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준다. 결국 백선규가 유명화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때의 선택으로 주인공이 화가로서 정체성을 찾고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2년 동인문학상, 2019년 조정래문학상 - <호랑이를 봤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투명인간>, <왕은 안녕하시다>
3	<h3>변사 김도연</h3> <p>(김하은 / 바람의아이들 / 244쪽)</p>
	<p>자신의 힘으로 길을 개척하고자 노력했던 도연은 조선 최초의 여성 변사가 된다. 하지만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보며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독립운동에 힘쓴 아버지와 오빠의 뒤를 이어 상해로 건너가 변사 활동과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독립운동 모습을 영화로 담아 기록하고 은성단의 필름을 보관하다 모진 고초를 이기지 못해 하늘의 별이 된다. 일제에 항거했던 어둠에 가려진 별들을 비추며 독립 운동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준다.</p> <p>※ 무성영화, 대한민국의 영화사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재미가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한국 안데르센상 대상 수상 - <꿈꾸는 극장의 비밀>, <똑똑, 남는 복 있어요?>, <꼬리달린 두꺼비, 껌박이>

4

사춘기 문예반

(장정희 / 서유재 /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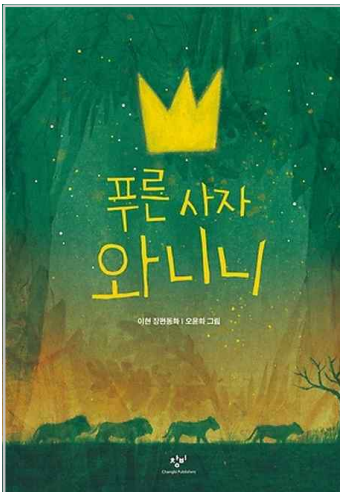
외딴 섬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 온 주인공 선우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여고생들의 우정과 연대,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글쓰기에 관한 성장소설이다. 작품 속 문예반 소녀들처럼 차마 꺼내지 못한 마음 속 이야기를 글로 써내면서 치유해갈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 주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가 청소년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 현직교사, <빽치GO 박차GO>, <우린 이제 겨우 열여섯>, <흙, 스위트 흙>

5

푸른 사자 와니니

(이현 / 창비 / 216쪽)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서 '열심히 살면 내일도 두렵지 않다'를 강조하여 어른 아이 모두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모험 동화책이다. 쓸모 없다는 이유로 무리에서 쫓겨난 사자 와니니가 초원을 떠돌며 겪는 일들을 그린 동화로, 아프리카의 광활한 초원에서 펼쳐지는 모험을 사실적이고 감동적으로 담아냈다. 낮선 공간에서 전개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을 심어준다.
(출처 : 알라딘)

- 제13회 전태일 문학상, 제10회 창비 '좋은 어린이책' 공모 대상 수상
- <짜장면 불어요!>, <로봇의 별>, <우리들의 스캔들>

■ 일반 부문(5권)

1	결핍을 즐겨라 (최준영 / 추수밭 / 276쪽)
	<p>사람들은 늘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비우는 방법, 생각하는 방법, 꿈꾸는 방법, 성장하는 방법들을 친근하게 알려주고 있다. 노숙인 인문학을 펼쳐온 저자답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경험담을 바탕으로 일상의 인문학적 사색의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서 더 편안하고 깊게 빠져든다.</p> <p>- <최준영의 책고집>, <행복한 인문학></p>
2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김수현 / 마음의숲 / 288쪽)
	<p>우리가 ‘온전한 나’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도 말고, 또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온전히 나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건넨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해야만, 겉모습에 따라 초라해 지거나 오만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p> <p>- <100% 스무 살>, <안녕 스무 살>, <180도></p>
3	라틴어 수업 (한동일 / 흐름출판 / 312쪽)
	<p>서강대학교에서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강의를 했던 ‘초급·중급 라틴어’ 수업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다. 라틴어를 통한 인문학 강의이며, 사고체계의 틀을 만드는 것이 강의와 책의 목적이다. 총 28장의 강의별 질문을 통해 사색하고 답을 찾는 시간을 유도하고 있다.</p> <p>- 한국인 최초, 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 <카르페 라틴어(종합편)>, <법으로 읽는 유럽사></p>

4

말그릇

(김윤나 / 카시오페아 / 312쪽)



우리의 ‘말’은 우리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투영한다. 말그릇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면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말을 천천히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보다 편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 코칭심리전문가, ‘THE 연결’ 대표
- <당신을 믿어요>, <슬기로운 언어생활>, <자연스러움의 기술>, <진짜 나를 만나는 라이팅북>

5

심미안 수업

(윤광준 / 지와인 / 288쪽)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아름다움을 살펴보는 눈, 심미안이 숨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편견 없이 바라보고, 두려움 없이 다가갈 줄 아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름다움을 추구하여 한 개인의 일생을 바꾸고, 기업의 가치를 지켜낸 재미있는 사례들과 감상자의 입장에서 참고할만한 실용적인 조언들을 담았고, 현대인들의 삶의 기술인 사진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일상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담아 심미안을 기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출처 : 네이버책)

- <잘 찍은 사진 한장>, <윤광준의 생활명품>, <우리들의 스캔들>